

경남지역 결혼이민자·귀화자의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은?

Vol. 29
 2024. 04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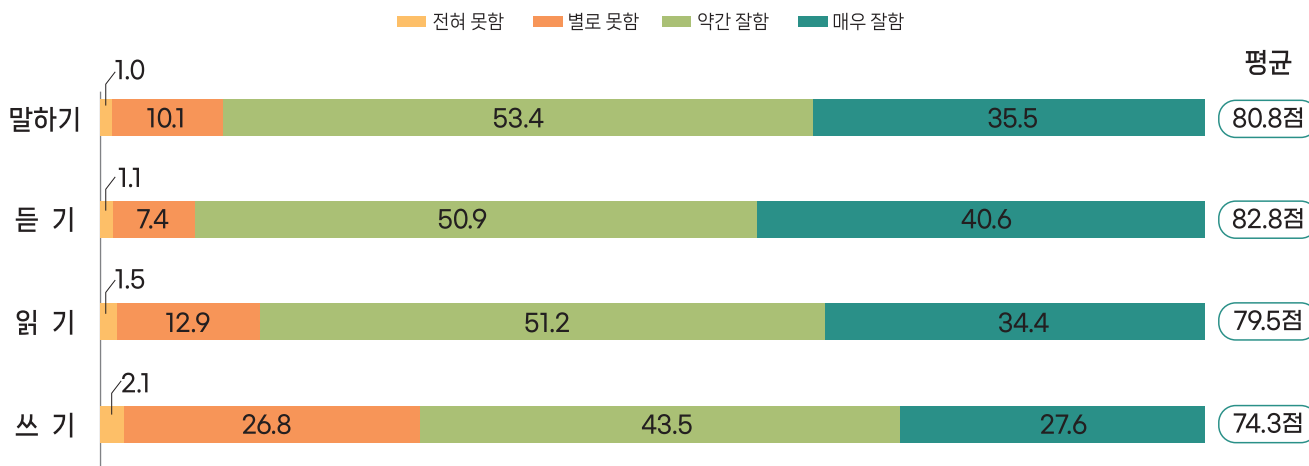
이인숙 선임연구위원

1. 한국어 의사소통 점수

결혼이민자·귀화자 자신이 평가하는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은 100점 만점에 전체 평균 79.4점으로, 듣기 능력이 82.8점으로 가장 높고, 쓰기 능력이 74.3점으로 가장 낮음

한국어 의사소통 점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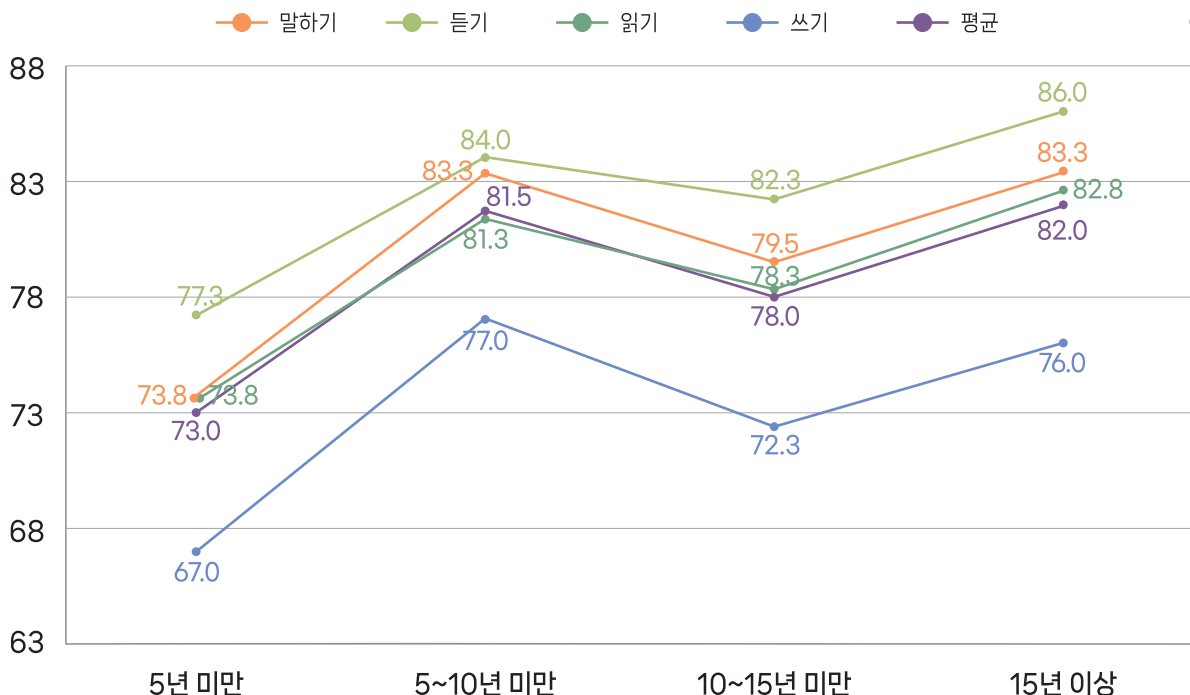
(단위: %)



한국어 의사소통 점수는 5년 미만 체류자는 평균 73.0점, 15년 이상 체류자는 평균 82.0점으로 약 9점 정도 높아졌고, 말하기 점수가 가장 많이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남

한국 체류기간별 한국어 의사소통 점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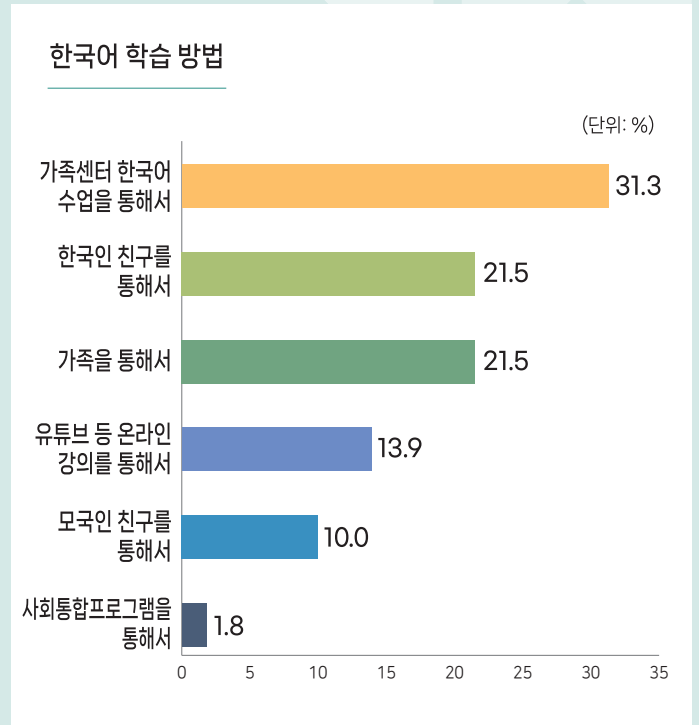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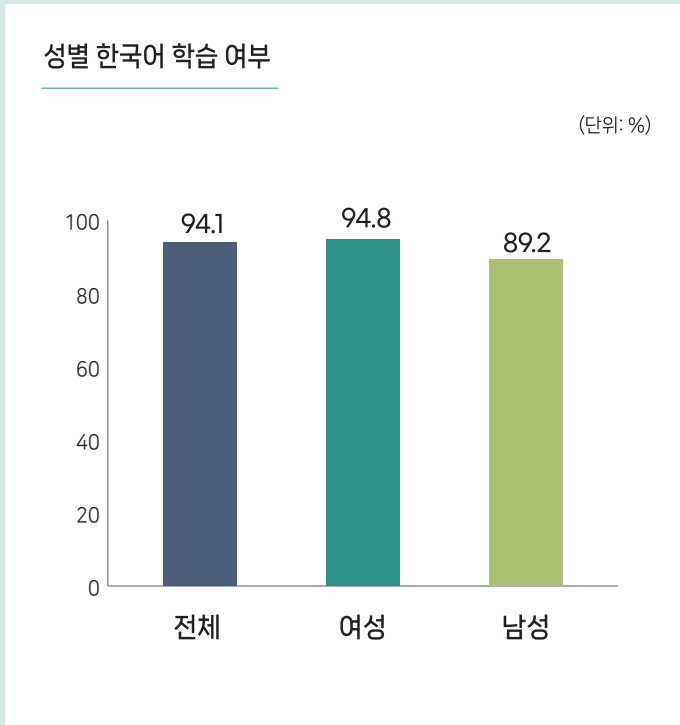
(단위: %)



2. 한국어 학습 경험 여부 및 학습 방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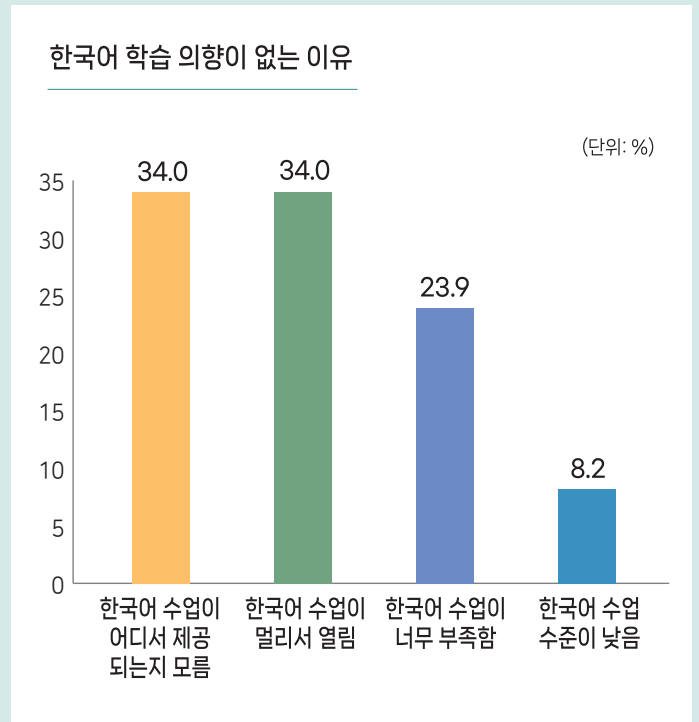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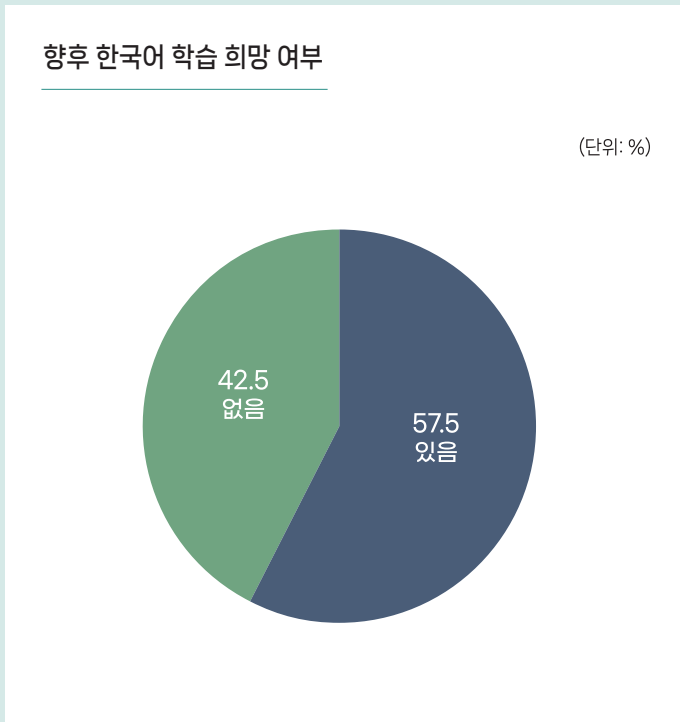
| 한국어 학습 경험은 전체 평균 94.1%임. 성별로는 여성 94.8%, 남성 89.2%로 여성이 높게 나타남

| 한국어 학습 방법은 '가족센터 한국어 수업'이 31.3%로 가장 높고, 다음이 '한국인 친구' 21.5%, '가족' 21.5% 등의 순임



| 향후 한국어 학습을 희망하는 응답자는 57.5%이고, 42.5%는 학습 의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

| 학습 의향이 없는 이유로는 '한국어 수업이 어디서 제공되는지 모름'과 '한국어 수업이 멀리서 열림'이 각각 34.0%로 높게 나타남



출처 : 이인숙·이혜림·최나현(2023), 2023 경상남도 다문화가족정책 특성성별영향평가, 경상남도여성가족재단
 주 : 조사 대상자는 경남 시군 거주 남녀 800명이고, 표본오차는 95% 신뢰수준에서 ±3.41%p임